

심 노인(沈老人)

“이 자식아 내 차례야…….”

“응.”

아우놈은 씩씩거리며 물러서서, 눈을 부릅뜨고 방바닥에 놓인 딱지를 노려본다. 콧등에 땀방울이 맺히고 왼손에는 구점스레한 딱지가 담뱃 쥐어져 있다.

형은 수중에서 제일 뻗뻗한 놈 한 장을 골라잡아, 입술을 악물고 한참 방바닥의 딱지를 겨누다가, 한 무릎을 탁 꿇고 딱 내리친다.

낡아빠진 다다미에서 풀썩 먼지가 일어나고, 방바닥의 주머니 딱지는 여부없이 제껴진다.

큰놈은 어깨를 으쓱하고 재빨리 주워 왼손에 쥐어 잡는다. 아우는 머쓱하고 수중에서 제일 힘없는 놈 한 장을 내동댕이친다.

“비켜 비켜.”

형이 벽제를 하고 또 그놈을 노린다. 그 바람에 심 노인은 또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어진다.

한 시간 전부터다. 아홉 살짜리하고 일곱 살 난 놈이 방 안에서 딱지치기를 시작하여, 심 노인은 두 손자놈에게 쫓겨 벌써 네번째 자리

를 옮겼다.

한구석에서 양말을 집고 있던 며느리가

“웬 야단들이야…….”

하고 소리를 뻑 지른다.

선머슴들 귀에는 늙은 조부의 가래 걸린 기침 소리도 젊은 어머니의 날카로운 꾸지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딱——쿵—— 하고 나면, 한 놈이 울상을 하고 또 한 장을 내어 놓는다. 수중에 한 장도 없어지면 외상으로 놀게 된다. 딱 놈이 제 것을 대신 내놓고 친다. 또 따면, 상대방에는 빛이 생기는 셈이다.

이 외상이 늘 말썽거리가 된다. 한 놈이 상대방의 수중의 것을 다 따 가지게 되면, 흐뭇해서 자못 관대해진다. 따라서 외상이 열 장 이상이면, 더러 에누리도 해 준다.

그러나 형세가 바뀌어서 제 것을 다 잃은 경우에는, 새삼스레 먼젓번 채권을 주장하려 든다.

딱지치기는 어느덧 권투로 변하여, 한 놈이 밀어젓히는 바람에 할아버지 무릎에 털썩 주저앉기도 하고, 한 놈의 주먹이 할아버지 어깨에 빗떨어지기도 한다. 완전히 심 노인은 그들의 안중에 없는 것이다.

“허 그놈들…….”

심 노인은 혀를 차고 또 자리를 옮긴다.

어쩐지 그는 이 버릇없는 선머슴들을 움쭉도 못하게 호령할 수가 없다. 단 하나인 아들의 몸에서 생긴 귀한 손자들이라 아끼는 마음도 있거니와, 그보다도 며느리 앞에서 손자들을 꾸짖기가 서먹서먹하다.

오히려 젊은 며느리는 시아버지 앞에서 뻑뻑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까지 한다.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니? 응, 나 죽는 것 보구 싶으냐?”

악다구니를 하고는 한숨을 땅이 꺼지도록 쉰다.

이럴 적마다 심 노인은 돌아앉아 입맛을 짹짹 다신다.

거북했다.

땀은 허구한 날 철없이 날쳐대어 아래층에서는 피난민 아이들 때문에 먼지가 떨어진다고 야단, 쿵쿵거리는 소리에 어린애가 잠을 못 잔다고 야단, 변소는 “집의 아이들 때문에” 더럽다고 야단, 더러운 발로 오르내려 마루꼴이 말 아니라고 야단, 마구 소리를 지르고 떠드니 정신 차릴 수 없다고 야단, 젊은 어머니는 어린 자식 사남매 때문에 뺨이 야위었다.

방 한 칸 얻어 든 죄로 가진 억울한 소리를 다 듣고, 생활에는 쪼들리고——성미가 날 수밖에 없다.

심 노인은 송구하고 심란하여 말수가 부쩍 줄었다.

무엇이 가슴을 막는지 답답하다.

며느리는 한참 녀두리를 하고 난 후 몸뚱이 위에 두루마기를 걸치고 “잠깐 다녀오겠어요.”

하고 밖으로 나갔다.

시장에를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손자들은 싸우기에도 지쳤는지, 어머니가 집다 놓고 간 양말 보따리를 끌러 가위를 꺼내어 종이를 썰기 시작했다.

노인은 덤덤히 앉아 창 밖을 내다보았다. 서쪽으로 난 창으로는 일인 공동 묘지의 회백색 비석들이 황폐한 성지처럼 서글피 눈에 들고, 동으로 난 창으로는 푸른 바다와 난립한 배의 돛대들이 보인다. 시골 산골 태생인 노인의 눈에는 다들 서투른 풍경이다. 부뚱가의 활기를 띤 소요도 무덤의 숭엄도 그에게는 아무 감흥을 주지 않는다.

그는 방바닥에 시선을 옮겼다.

지저분한 다다미 위에 담배 구멍이 두서넛——방 한구석에는 손자들이 늘어놓은 종이 조각, 불꺼진 화로에는 삐뚜로 박힌 삼발 쇠 위에 뚜껑 없는 주전자가 기울어 걸려 있다.

젓먹이 손녀는 이 수선판에 놓인 옆에서 잠이 곤히 들고, 할머니

등에 업혀 아래층으로 내려간, 아우 본 세 살 난 손자의 떠듬떠듬한
군가 소리가, 이층에까지 들려온다. 노인에게는 모든 것이 꿈만 같
다. 분주한 아침이 지나고 한나절도 거의 갈 무렵이면, 노인은 더욱
아득하고 심란해진다. 알 수 없는 것은 그토록 그리던 자손들에게 들
러싸여 살면서 한없이 외로운 것이다.

아들은 아침에 나가면 밤에 돌아와, 자고는 나간다. 손자들도 한
방에서 기거하면서 놀기에 열중하면 할아버지 발을 밟고도 모른다.
며느리 역시 지금 나간 건 알지만,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노인에게는 이 누추한 팔조 다다미 방이 무슨 여인숙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 행려 과정에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길이 막혀 떠나지를
못하고, 부득이 한곳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다.

“후욱.”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뿜었다. 노인의 가슴을 가득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모른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괘시한다고
할 수는 없다. 생활에 용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용혜할 필요
가 없는 것이다.

그쯤이야 노인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형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할 힘이 없다. 안타깝다. 원래 착하고 후
하고 이해성 많은 그다. 현재의 괴로움이 국난에서 오는 것쯤이야 모
를 바 아니다. 아들 내외가 불측하다고도 할 수 없다.

그저 외롭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는 그는, 그런 자극물로 자기의 상념을 마비시
킬 수도 없다. 너무 고지식하기 때문에 외곶으로만 파고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굴욕에 가까운 자기 비하와 견딜 수 없는 무료가 더욱 기
름을 부었다.

손자놈들은 종이 썰기에 열중하여 바람 분 뒤같이 방 안은 어수선
하나마 조용하다.

깨어진 유리창에다 바른 신문지 조각이 바람에 파르르 떨린다. 추운 봄이다.

그는 무릎을 도사리고 웅크려 앉았다. 새삼스레 살던 고장이 그리워졌다. 며느리하고 한 방을 쓸 수밖에 없는, 이 망발된 생활이 기막히다는 것보다, 포착할 수 없는 무자비한 무형의 현실이 그의 가슴을 쓰리는 것이었다.

시골서 늙은 두 양주 남 보기에다 쓸쓸하게 외로이 살던 그 시절의, 평안과 너그러운 심정과 애뜻한 사랑과 그리움——그 그리움 속에서 그들은 효성 깊고 애정에 찬 기특한 자손들을 자랑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기들을 아들의 행복의 반영으로 굳게 믿었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막상 자손들을 슬하에 거느려 보니, 뼈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외로움뿐인 것 같았다.

시골 살 때 때때로 메주니 양식이니 옛 양념거리 같은 것을 서울 아들네 집에 갖다 주던 즐거움에 비하면, 아들에게만 의지하고 수족을 묶어 놓은 것 같은 지금 생활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시골서 상상하던 안일이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한구석 단단히 차지하고 있던 자기가, 이제는 완전히 존재 이유를 잃은 것같이 서글픔——공연히 기가 죽었다. 이삼 일 전이다. 아래층에서 아래채에 들고 있는 역시 서울서 피난해 온 젊은 여자가

“댁에는 식구가 많으셔서 여간 고생이 아니시겠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지만 어떡허나요?”

이것은 며느리의 소리다.

“서울서도 시어른 모시구 기셨어요?”

“피난 오기 전까지 시골 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오셨어요?”

이편은 놀란 음성이다.

“시골이래두 수원이라서, 그리 일단 피했다가, 다시 이리루 내려 왔지요.”

“네에? 펍 연세가 많어 보이던데?”

“일흔들이세요.”

“네 일흔들…….”

그 어조에는 비난에 가까운 것이 섞여 있었다.

그것이 요즘 갑자기 날카로워진 노인의 신경에 딱 와 닿았다.

그 후부터 노인은 웬일인지 며느리를 허심으로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마치 며느리가 자기를 비난이나 한 것처럼.

오늘도 몹시 한기가 들건만, 솔직히 화로에 불을 담아 오라고 할 수가 없어, 웅크리고 앉은 채 구박이나 받은 것같이 고깝고 서글팠던 것이다.

일생을 근면하고 독실한 농업가로 대소가의 의리도 더할 나위 없이 지키고, 동네 사람에게도 인심을 얻어, 정직하게 살아온 자기 딸로가 이런 것이었던가? 아들 하나를 위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 가며 모든 쾌락 안일을 물리치고 묵묵히 일해 온 자기가 아니었던가?

그 노력과 정성이 이 구점스레한 다다미방 한구석을 차지할 가치도 못 될 뿐더러, 젊은 세대는 자기의 노년(老年)까지 허락을 얹으려 드는 것이 아닌가?

노인은 자기 생애가 모두 오산이었던 것만 같았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져서, 회백색 비석에 깔은 듯한 음영을 던지며 넘어갔다. 시장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밥을 지으러 내려가고, 늙은 마누라가 방을 치운다. 자던 젓먹이가 킁킁거리며 깨고 개구쟁이 두 놈들은 동으로 난 창 앞에 나란히 서서

“배 배, 태극기 단 배.”

곡조를 붙여 경치를 그리고 있다.

아랫골목에서 거센 사투리 소리로 “서울내기 다마내기 맛 좋은 고래괴기” 하며 이 고장 아이들이 이유 없는 반감으로 ‘서울내기’인 창

앞에 선, 두 개구쟁이를 쳐다보며 놀려 댄다.

개구쟁이 놈들은 즉시로 응수할 만한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무어 어찌구 어째?”

눈을 부라리고 마구 주먹을 내흔든다.

그러다가 키가 큰 중년 남자가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자

“야아 아버지 아버지.”

하고 환호를 한다. 놀리던 놈들은 일제히 짜악 흩어져 버린다.

얼마 안 되어 아버지가 이층에 올라온다.

아들이 돌아와도 심 노인은 팔짱을 낀 채 덤덤히 앉아 창 밖만 바라보고 있다.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시는 빈대떡 사 왔어요. 식기 전에 드리세요.”

아들이 외투를 입은 채 종이에 싸인 것을 내놓는다.

심 노인은 역시 창 밖만 보고 있다.

“영감 어서 식기 전에 잡수슈.”

마누라가 빈대떡을 종이에 놓은 채 권한다. 개구쟁이 놈들의 눈이 그 쪽으로만 쏠린다.

아우 본 세살둥이는 뒤통뒤통 걸어가서, 할아버지보다 먼저 손을 댄다. 노인은 차라리 아들이 불측하였으면, 복수적인 서글픔에 잠겨 오히려 위안을 발견할 수 있을 성싶은 심경이다. 오늘날만큼 어쩐지 아들이 오밀조밀 자상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노인은 비타협적인 태도로 창 밖만 보다가, 그제야 돌아앉아 우선 손자들부터 나누어 준다. 한 점씩 얻어 가진 어린것들은 방안을 돌아다니며 우기적거린다. 심 노인은 약간 마음이 풀린 모양이다.

비로소 한 점을 뜯어 입에 넣었다.

옷을 갈아입은 아들이 등피를 닦고, 램프에 불을 붙였다.

(1952.)